

니퍼트, 100승+kt 탈꼴찌 이끌까

연봉 총액 100만달러 계약합의 '최장수 외국인'
KBO 리그 최초 외국인 100승에 6승만 남겨
피어밴드와 선발 원투펀치 구축해 전력 강화

더스틴 니퍼트(37)가 kt 유니폼을 입으면서 8년 연속 KBO리그 무대에 서게 됐다. KBO리그 최초 외국인 투수 100승과 함께 kt의 도약을 견인할지 관심이 쏠린다.

kt는 4일 니퍼트와 연봉 총액 100만 달러 조건에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2011년 두산에 입단한 니퍼트는 최고의 외국인 투수로 활약했다. 7시즌 동안 185경기 출전해 1115%이닝을 던지며 94승 43패 평균자책점 3.48 탈삼진 917개를 기록했다. 2015년과 2016년 두산이 한국시리즈를 2년 연속 제패하는데 선봉에 섰다.

특히 2016년에는 다승(22승), 승률(0.880), 평균자책점(2.96) 등 투수 3관왕을 차지했다. 정규시즌 MVP와 KBO 골든글러브는 그의 차지였다.

2016시즌 종료 후에는 외국인 선수 역대 최고 몸값인 210만 달러에 두산과 계약하며 장수 외국인 선수로 성공 신화를 썼다.

니퍼트는 지난 시즌 30경기에 출

전해 14승 8패 평균자책점 4.06의 성적을 남겼다. 수치상 준수한 성적이었지만 전년도에 비해 확실히 구위가 떨어져 보였다. 후반기에는 난타를 당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두산이 롯데에서 뛰었던 조쉬 린드블럼을 택하면서 니퍼트와 오랜 동행은 끝이 났다. 적지 않은 나이와 높은 몸값 탓에 새 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대로 커리어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됐던 니퍼트는 kt 유니폼을 입기로 하면서 8시즌 연속 KBO리그 무대에 설 수 있게 됐다.

니퍼트는 역대 외국인 투수 최다승(94승)과 최다 탈삼진(917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6승만 더하면 외국인 투수 최초로 100승 고지를 밟게 된다. 국내 선수 통틀어도 30번째 대기록이다.

또 지난 시즌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른 라이언 피어밴드(33)와 함께 외국인 원투펀치를 구축하며 팀의 중위권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kt는 넥센이 포기한 피어밴드를 영입해 대박을 쳤다. 피어밴드는 26경기에서 160이닝을 던지며 8승 10패 평균자책점 3.04 탈삼진 132개를 기록했다. 타선 지원 부족으로 두 자릿수 승수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20번 퀄리티 스타트(6이닝 3실점 이하)를 기록했다.

니퍼트가 아무리 하락세에 있다고 해도 충분히 10승 이상은 기대할 수 있다. KBO리그에서 뛰었던 지난 7시즌 동안 단 1시즌을 제외하고 모두 10승 이상을 거뒀다.

황재균의 영입으로 공격력을 보

강한 kt는 검증된 외국인 투수인 니퍼트와 피어밴드로 원투펀치를 구축하며 전력을 한 층 더 강화해 최하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

임종택 kt 워즈 단장은 "선수 본인이 kt에서 뛰고 싶다는 의지를 전달해 왔다. 2017시즌에도 179%이닝을 던지며 14승을 기록한 리그 정상급의 경기운영 능력과 탈삼진을 등을 고려할 때 올 시즌 kt 선발진의 주축으로서 팀 성적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FC서울 레전드' 데얀, 적군 속으로

수원 삼성 이적 확정

영원히 FC서울에 남을 것 같던 데얀(37)이 팀을 떠났다. 목적지는 서울의 라이벌인 수원 삼성이다. 이제 데얀의 유니폼은 붉은색이 아닌 파란색이다.

수원은 4일 데얀의 영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원과 데얀은 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 구단 사무실에서 만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데얀은 K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손꼽힌다. 9시즌 통산 303경기에서 173골 41도움을 기록했다. 3년

연속 득점왕, 4년 연속 시즌 베스트 11 등 화려한 족적을 남겼다.

서울의 최전방을 대표하던 데얀에게 이상징후가 감지된 것은 지난 해 말이다.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한 서울은 리빌딩을 이유로 데얀을 잡지 않았고, 수원이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린 데얀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이적 이성이 됐다. K리그 최고 라이벌인 수원과 서울은 데얀의 짝꿍 이적으로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데얀은 곧바로 제주로 날아가 수원 선수단 전지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

오서 코치 믿음 "차준환, 일낼 것"...피겨 평창 최종선발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경합한 한국 피겨 선수들이 최종 관문에서 격돌한다. 5일부터 7일까지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KB금융 코리아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18이 무대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세 차례 선발전을 통해 평창 아이스링크에 실 종목을 출전자들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마지막 3차 선발전이다.

남자 싱글은 1명에게만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진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는 이준형(22·단국대)이다. 1, 2차 선발전 함께 459.12점을 얻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록 없는 연기로 꿈의 무대에 바짝 다가갔다.

브라이언 오서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는 기대주 차준환(17·휘문고)이 431.58점으로 이준형의 뒤를 쫓고 있다. 1차 선발전에서 206.92점으로 3위에 오른 차준환은 2차 선발전에서 224.66점을 얻어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준형과 차준환의 격차는 27.54점이다. 차준환은 특기인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앞세워 뒤집기에 나선다는 작전이다. 반면 넘게 자신을 괴롭힌 오른 발목과 왼쪽 고관절 통증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차준환의 소속사인 브라보엔뉴 관계자에 따르면, 오서 코치는 "피겨에서 30점차 내외는 당일 컨디션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면서 "최근 차준환의 컨디션이 급

상승하고 있어 3차 선발전에서 큰 일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서 코치는 대회를 위해 한국으로 올 예정이다.

상위 2명에게 출전권이 주어지는 여자부에서는 최다빈(18·수리고)이 함께 350.16점으로 1위를 고수 중이다. 그 뒤를 333.35점을 기록한 안소현(17·신북고)이 이고 있다.

아이스댄스 1, 2차 선발전에 단독 출전한 민유라(23)·알렉산더 게말린(26) 조는 티켓을 예약했다. 아이스댄스가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페어에서는 김강찬(23·서울 일반)·김규연(19·하남고) 조의 출전이 유력하다.

전남드래곤즈, 공격력 강화위해 스트라이커 하태균 선수 영입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는 공격력 강화를 위해 폐체신 대체자로 중국 리그에서 활약한 하태균 선수를 영입했다.

전남드래곤즈는 하태균 선수가 힘과 높이를 이용한 헤딩력과 볼 점유율이 높고 골 결정력이 뛰어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영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하태균 선수는 2007년 드래프트 1순위로 수원 삼성에 입단하여 K리그 신인상을 수상한 공격수로 2014년까지 K리그 통산 135경기 30골 7도움을 기록했다.

2015년 중국으로 이적, 연변에서 26골을 기록 득점왕에 오르며 팀을 슈퍼리그로 승격시켰다.

또한 2017년에는 바오딩으로 이적해 팀 내 최다골인 14골을 기록 할 정도로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이다.

이상철 감독은 "포항 원정에서 이어 하태균이 팀에 합류함으로써



전남의 공격력이 지난 해 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태균 선수도 "나에게 믿음을 보여준 전남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철 감독님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팀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체육본부장

‘훈련왕’ 박병호 9일 귀국 KBO리그 컴백 기사회전

2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KBO 리그로 복귀하는 박병호(32·넥센 히어로즈)가 다음 주 귀국한다.

넥센 구단은 3일 "박병호 선수가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후 인천의 호텔에서 환경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영식에는 고희영 단장이 참석해 박병호가 KBO리그에서 사용하던 등번호 52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전달한다.

박병호는 KBO리그 복귀 소감과 올 시즌 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박병호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KBO리그 홈런과 타점 1위에 올랐다. 2014년(52개)과 2015년(53개) 2년 연속 50홈런을 때렸다.

KBO리그에서 9시즌 동안 868경기 출전해 타율 0.281(274타수 77안타) 210홈런 604타점 535득점의 성적을 거뒀다.

2015시즌이 끝나고 포스팅, 즉 비공공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던졌다. 1285만 달러의 포스팅 비용을 지불한 미네소타 트윈스와 4년 1200만 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반 이후 메이저 리그로 강등된 뒤 한 번도 풀업되지 못했다. 결국 박병호는 남은 연봉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복귀를 결정했다.

오세근팀 : 이정현팀, 농구 올스타전...김주성·허훈도 함께

드래프트로 '매직팀' vs '드림팀' 결정...14일 개최



프로농구 올스타전 팬투표 1위 오세근(왼쪽)과 2위 이정현

프로농구 올스타전 팬투표 1위를 한 오세근(안양 KGC)과 2위 이정현(전주 KCC)이 각각 자신의 팀을 꾸려 맞대결을 펼친다.

KBL은 14일 잠실화생체육관에서 열리는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 팬투표에서 3만1479표를 받은 오세근이 이정현(2만9946표)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

다.

작년 12월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된 팬투표에서 오세근은 1위를 하며 2014~2015시즌 이후 3년 만에 팬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올스타전은 오세근과 이정현이 각각 드래프트를 통해 12명의 팀원을 구성한다.

팬투표 결과 3위부터 24위 선수들을 번갈아 가며 선발해 '오세근 매직팀'과 '이정현 드림팀'으로 나눠 경기를 치른다.

다음은 버너(원주 DB), 양동근(울산 현대모비스), 리카르도 리틀리프(서울 삼성), 김종규(경원 LG), 두경민(DB), 허훈(부산 KT), 이종현(현대모비스), 송교창(KCC)이 3~10위를 차지해 선발로 출전하게 된다.

이어 전준범(현대모비스), 최준용(서울 SK), 전태풍(KCC), 김시래(LG), 박찬희(인천 전자랜드), 양희종(KGC), 김주성(DB), 김태술(삼성), 사이먼(KGC), 김기운(KT), 제임스 켈러(LG), 조성민(LG), 최진수(고양 오리온), 안드레 에밋(KCC)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김주성은 17위를 차지해 역대 최다인 16번째 올스타전에 나서게 됐다. 데뷔 후 전 시즌 올스타전 출전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2017년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뽑힌 허훈은 이번 시즌 데뷔한 신인 선수 중 유일하게 별들의 잔치를 초청 받았다.

3라운드 종료 기준 1위 이상범 DB 감독이 이정현 드림팀, 2위 문경은 SK 감독이 오세근 매직팀 감독을 지휘한다.

오타니, MLB '가장 흥미로운 인물'

투타겸업 구경 기대 ↑

메이저리그 진출 과정에서 큰 관심을 모은 일본의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24)가 올해 가장 흥미로운 인물로 꼽혔다.

미국 스포츠매체 ESPN은 3일 "2018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 18명을 선정하면서 오타니를 1위에 올렸다."

ESPN은 "오타니는 앞으로 2년간 9자리 숫자에 가까운 연봉을 회생하고 일본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터스를 떠났을 때 그의 우선권을 분명히 했다"며 "메이저리그 대다수 팀에 질문지를 보내 답을 해오라고 요청했고 7개 구단과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타니는 낯선 땅에서 전례가 없는 일을 시도하면서 LA 에인절스 구단 마이크 소시아 감독과 함께 폭넓은 도전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례가 없는 일은 곧 오타니의 '투타 겸업'을 뜻



한다. 오타니의 메이저리그 진출로 이득이 집중된 것도 투타 겸업 때문이다.

우투좌타인 오타니는 시속 160km가 넘는 직구에 시속 140km 중반까지 나오는 포크볼을 구사하고 타격에서도 정교함과 장타력을 고루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프로야구에서 뛰는 5년 동안 오른손 투수로서 통산 42승 15패 평균자책점 2.52의 성적을 거뒀다. 왼손 타자로 뛰면서는 통산 타율 0.286 48홈런 166타점의 성적을 냈다.